전남도-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맞손

미래전략산업·남해안권 발전 상생협력 시동

특별법 제정·경제자유구역 운영효율화 공조

전남도는 지난 29일 남해대교 남해각에서 경남도와 '전남-경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하고, 국민주권시대 미래 전략산업 공동 대응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고, 전남도와 경남도가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COP33 공동 유치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다.

양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공청회·토론회 등의 입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된 연구개발, 인재양성, 산업 생태계 확산 정책에서도 긴밀하게 연계한다.

또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공동 건의문 제출, 대국민 공감대 형성 활동 등을 협력하고,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의 신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 발전 전략과 핵심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조성, 에너지, 풍력, 우주항공 등 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 점검 체계 운영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양 도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남악=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순천시, 1000억 규모 코스트코 유치

MOU 체결… 선월지구에 입점

매년 1300만명 생활인구 유입

250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전남 순천시가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 입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코스트코는 해룡면 선월지구에 전체 면적 4만6000㎡, 총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순천점 입점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코스트코 입점 사전 절차인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했고, 이에 코스트코 미국 본사 회장이 순천점 입점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과거 한 차례 무산된 사례를 거울삼아 코스트코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촘촘한 유치 전략을 펼쳤다.

시는 코스트코 순천점이 개점하면 도내는 물론 광주·경남·제주 등지에서 연간 1300만명 이상의 생활인구 유입과 25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책 확대, 신규 시책 발굴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농산물·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전통시장 상생협력 외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상생협약에 담을 예정이다.

순천=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개통 경북 구미시가 1일부터 본격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행복버스'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념해 지난 29일 선산터미널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복버스는 선산·무을·옥성·도개면 등 교통 소외지역으로 투입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사진은 김장호 시장과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칠갑마루 통합마케팅 6개월만에 100억 매출

청양군, 농협조공법인 출범 전보다 52.8% 늘어

블루베리·멜론등 수도권 공급… 건고추 직거래도

충남 청양군의 칠갑마루 통합마케팅이 청양군농협조공법인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실적 10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산물 유통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양군농협조공법인은 군내 지역농협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칠갑마루 통합마케팅의 핵심 주체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 효율화를 목표로 올해 3월 출범했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청양군 대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칠갑마루'를 적극 활용해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와 온라인쇼핑몰 유통망 강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이달 23일 기준 104억원을 기록, 법인 출범 전 같은 기간 대비 52.8% 증가했다.

청양군농협조공법인은 그동안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5월부터 수도권 하나로마트에 블루베리, 수박, 멜론을 공급했으며, 8월 건고추 수확기에 맞춰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에 직거래 공급을 추진했다.

김돈곤 군수는 "조공법인은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25일 개막

9일간 공연·체험행사 다채

갈대밭 생태 탐험대 프로도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2일까지 9일간 가을이면 황금빛 갈대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강진만에서 열린다.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생태 축제'를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축제에는 생태환경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업사이클링 체험도 확대된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K-콘텐츠 열풍에 맞춰 한국민화 뮤지엄과 함께 한국 전통 민화인 '까치호랑이(작호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공예와 페플라스틱 뚜껑을 재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는 동시에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계획이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 역시 규모를 확대해 슬라임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블럭·미니카 체험, 어린이 슈퍼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말에는 우유 댄스파티와 뽀로로, 브레드 이발소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공연인 어린이 싱어롱쇼가 펼쳐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 전망이다.

전문 생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갈대밭 생태 탐험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고니, 칠게, 짱뚱어 등 강진만에서 만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강진=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추석 연휴 안심 수돗물 공급

경남도, 급수대책 상황실 가동

경남도가 추석 연휴를 맞아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2주간) 정수장 등 주요 상수도시설을 집중 점검해 수리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해 연휴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급수사고가 잦은 지역 및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수도계량기·기동 수리장비 등 주요 비상자재를 사전에 확보해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동안 도와 시·군은 '상수도 급수대책 상황실'과 '기동수리반'을 운영해 민원 접수부터 현장 조치까지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예상치 못한 급수 사고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창원=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예산공원 도시숲 복원사업 본격화

예산군, 문화공간 조성 착수

다목적구장·산책로등 설치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예산리 122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예산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총사업비 21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활용이 제한적이던 미조성 공간에 숲 복원을 위한 수목을 식재하고 다목적구장과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점비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를 새롭게 설치해 주민 안전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주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예산공원을 주변 도시숲과 연계해 많은 주민이 찾는 명품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공원 인근에는 봉대미숲, 주교도시숲 등 다양한 도시숲이 함께 조성돼 있어 도심 속 녹지축을 형성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산=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여행하세요. in 동의보감촌'

산청군, 6~9일 특별체험행사

경남 산청군은 '여행하세요. 산청. in 동의보감촌'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등 두 차례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 함을 모아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10월6일부터 9일까지 산청 대표 관광지 동의보감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분수광장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 이벤트가 진행된다.

체험 부스에서는 만들기·놀이 체험이 운영되고 전통 민속놀이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선보인다.

또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와 매일 열리는 코믹 매직 벌룬쇼로 풍성한 즐거움을 더한다.

군은 이번 행사가 귀성객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며 따뜻한 명절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산청은 언제 와도 잠겹고 즐거운 곳'이라는 마음을 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산청=이명수 기자 lys@siminilbo.co.kr

해남군, 16~19일 'LPGA 챔피언십 대회'

총 6만여명 스포츠 관광 창출

전 세계 170여개국에 생중계

전남 해남군 화원면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오는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대회로, 호남권에서 경기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PGA대회 심황은 전세계 170여개국, 약 5억7000만가구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회기간 동안 주최측에서는 5만~6만여명의 관람객들의 현장 방문을 예상하는 등 스포츠 관광 수요가 대거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회 관람 입장권은 온라인 BMW 밴티지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평일권(목·금)은 4만원, 주말권(토·일)은 6만원이다.

대회기간 중 파인비치CC내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며, 해남군민이 현장 구매시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군은 대회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군과 군의회, 지역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총 망라된 범군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준비와 교통·안전·의료 대책, 지역 홍보 전략 등 협력방안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

해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간담회에 참석한 김철우 군수(가운데)와 농어업인단체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농어업인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맞손

전남 보성군이 지난 29일 군청에서 지역내 농어업인단체 대표들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간담회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보성군 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보성군지회 ▲쌀전업농연합회 보성군지회 ▲한국여성농업인 보성군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보성군지부 ▲보성군 임업후계자협회 ▲전국어민총연맹 ▲보성군어민연합회 등 8개 단체장들이 참석해 보성군 농어업인 1만2000여명을 대표해 사업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씩 지급되는 제도로,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군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약 3만7045명의 농촌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2년간 1322억원 규모의 재원이 지역에 순환해 귀농·귀촌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 한우 소비촉진 행사

전남 장흥군은 최근 통합의학박람회장내 흥놀이터에서 '한우 판매 소비촉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흥군 축산과와 한우 자조금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한우협회 장흥지부와 장흥축협이 협력해 장흥군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불고기와 등심을 활용한 시식회는 매일 오전과 오후 2회(11~12시·오후 2~3시)씩 운영돼 박람회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식 행사외에도 등심, 안심, 채끝 등 구이용 한우와 국거리용 한우에 대해 5~15%의 할인판매가 이뤄져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한우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곰탕, 육포, 무산김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돼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운영 인력이 투입돼 행사진행 및 위생관리, 시식 준비 등을 도맡았으며, 장흥축협 본점과 통일한 할인율을 적용해 지역 축협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했다.

장흥=장영채 기자 jyc@siminilbo.co.kr

영광군 체육회, 영광스포츠센터에 새둥지

전남 영광군 체육회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 29일 개최됐다.

이번 체육회 사무실 이전은 20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영광스포츠센터 2층에 위치해 종목단체와 동호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다.

그간 체육회는 협소한 공간과 접근성의 한계 속에서도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시대 변화와 체육 환경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이번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정병환 영광군 체육회장은 "영광군 체육회가 20년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는 뜻깊은 순간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이전은 체육 행정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큰 도약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체육회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종목단체 간 협업과 지역 체육인들의 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진도군농기센터, 밭작물 병해충 방제 기술교육

전남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지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을철 밭작물의 병해충 방제 기술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생태도시연구소의 이기상 박사를 초청해 농업인들이 주로 재배하는 대파, 배추, 고추 등 밭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파밤나방, 뿌리응애 등 주요 해충의 피해 특성과 방제 기술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농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소독법과 페르몬(Pheromone) 등 친환경적인 방제자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고,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뤄져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방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을철 밭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 농업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진도=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영암군, 전남도 건강증진경연대회 장려상

전남 영암군 '달밤에체조'팀이 전남도 주관으로 지난 29일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2025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에서 참여한 이 경연대회는 주민 건강생활 실천과 우수 건강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것이다.

영암군 대표로 참가한 달밤에체조팀은 즐겁게 체조하며 건강한 영암을 알렸다.

특히 군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생활체조를 달빛 아래서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선봬 주민 참여도와 실용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수희 영암군보건소장은 "영암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서 얻어낸 값진 결실이다. 영암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